

清代 論書詩* 小考

— 形式論을 중심으로 —

이 기 범 **

<目次>

- | | |
|---------------------|------------------|
| I. 緒言 | IV. 清代 논서시의 조선유입 |
| II. 시대적 배경과 논서시 | V. 結語 |
| III. 清代 논서시의 유형별 분류 | |

<국문 초록>

논서시란 시로써 글씨를 논한 시를 말한다. 이러한 논서시는 건안문풍의 일인자인 자건 조식의 악부시를 논서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당대에 이르러 이백과 두보에 이르러 논서시의 전형이 형성·발전하게 되었다.

宋代에는 蘇軾과 黃庭堅에 의하여 ‘尙意’를 추구하는 논서시가 유행하였으며, 양적인 면에 있어서도 『全唐詩』에 100餘首에 불과했던 논서시가 『全宋詩』에는 900餘首로 늘어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元·明대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이에 대한 반동으로 전통적인 서풍을 추구하고 선현들의 감회를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清代에 들어서면서 논서시는 金石學·考證學과 더불어 가장 전성기를 맞

* 論書詩 용어의 유래에 관하여 필자의 전 발표 논문 「중국 논서시 소고」, 『漢文古典研究』 제15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7. p.56.에서는 ‘論詩絕句’에서 유래 하였다고 하였으나, 역대 논서시들을 검토한 결과 蘇軾의 「和子由論書詩」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 동국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leehyunso@hanmail.net

이하는데, 이는 단순한 양적인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전시기와는 다른 본격적인 書法을 논하고 있는 詩들이 많아졌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시로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미진함이 있었기 때문에 절구의 연작 형태인 論書詩나 長詩의 論書詩가 성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역사상 가장 왕성하게 論書詩가 창작되었던 淸대가 전대와 다른 어떠한 새로운 양식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당시의 論書詩를 유형별로 분석해보았다.

【주제어】 論書詩, 論書詩의 體裁, 이백, 두보, 金석학, 고증학, 論書詩

I. 緒 言

詩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고인들은 “詩言志”¹⁾ 혹은 “詩者志之所之也”²⁾라고 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書寫를 나타내는 書는 한자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위치를 점유하여 왔으며, 역대로 이 書는 단순하게 의미 전달 기능 만으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書寫者의 학문과 예술, 나아가서는 인품까지도 나타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학자들이 익혀야 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때문에 이러한 글씨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의 문제, 곧 書藝에 대한 것은 줄곧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므로 그러한 관심을 詩로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제였다.

중국역사상 서예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며 전문적인 서가를 배출한 것은 漢代부터이다. 이 시기는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서체가 정립되어 가는 과정의 시기로, 崔瑗의 「草書勢」를 필두로 趙壹의 「非草書」,

1) 『書經』, 「舜傳」.

2) 『詩經』, 「毛詩序」.

蔡邕의 「篆勢」·「筆論」·「九勢」 등의 書論이 나오면서 論書詩가 충분히 존재하였을만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문헌상으로 존재하였거나 현재까지 전하여지는 것은 없다. 현전하는 최초의 논서시는 魏武帝 曹操의 아들인 陳思王 曹植이 쓴 「樂府詩」이다. 이로부터 시작하여 唐代에 이르러서는 李白과 杜甫에 의하여 논서시의 전형이 갖추어졌다. 宋代에는 蘇軾와 黃庭堅에 의하여 '尙意'를 추구하는 논서시가 유행하였으며, 양적인 면에 있어서도 『全唐詩』에 100餘首에 불과했던 논서시가 『全宋詩』에는 900餘首로 늘어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元·明代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이에 대한 반동으로 전통적인 서풍을 추구하고 선현들의 감회를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清代에 들어서면서 논서시는 金石學·考證學과 더불어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는 단순한 양적인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전시기와는 다른 본격적인 書法을 논하고 있는 詩들이 많아졌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시로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미진함이 있었기 때문에 절구의 연작 형태나 長詩의 논서시가 성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역사상 가장 왕성하게 논서시가 창작되었던 청대가 전대와 다른 어떠한 새로운 양식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당시의 논서시를 유형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서시가 당시 조선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

II. 시대적 배경과 논서시

청대는 文運이 융성하여 학문이 매우 발전한 시기였다. 이는 이민족이 통치하였으나 유구한 漢族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랜 기간 평화가 유지되면서 사회가 안정되었고, 또한 康熙帝(1654-1722)나 乾隆帝(1711-1799)와 같은 명군들이 나와서 적극

적으로 학문을 부흥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시대든 이민족이 통치를 함에는 懷柔政策과 統制를 병행하였지만 淸朝만큼 漢族에 대한 통제와 사상을 철저히 탄압한 예는 거의 없었다.

이른바 文字獄이라 하는 獄事는 24차례에 걸쳐서 시행되었는데, 곧 조정에 반항적인 내용을 담은 小說·淫詞와 淸朝에 불리한 野史나 詩文 등 反淸 文章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禁書로 몰아 538종 13,862부의 책을 焚書하고, 이에 관련된 문인이나 학자들을 옥사로 다스렸다고 한다.³⁾

이러한 여파로 사람들은 새로운 글을 쓰는 것을 경계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츰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적인 번영과 함께 나라에서 학문을 장려하여 학구열이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淸初에 형성되었던 ‘經世致用’의 학문을 떠나 ‘학문을 위한 학문[爲學問而學問]’의 태도를 가졌다.⁴⁾ 그래서 訓詁와 文義, 名物의 유래를 연구하는 考證學이 성행하였는데, 이는 고전에서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문헌학적 실증·귀납에 몰두하여 학문 그 자체는 사상이나 생활과 분리되었지만, 학문적으로는 중국 학술사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학문의 경향은 문학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새로운 문체나 새로운 형식의 창작보다는 고전을 연구하고 답습하는 擬古主義의 학풍이 성행하였다. 그리하여 시풍에 있어서도 唐詩를 숭배하는 尊唐派와 宋詩를 으뜸으로 하는 宗宋派가 청조 문학사의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과거의 작품에서 규범을 찾는 경향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정리하고 연구하여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쌓았는데, 그러한 결실로 성행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역대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이었다. 이러한 淸朝 문학비평의 한 양상 가운데 하나가 ‘論詩絕句詩’의 저작활동인데, 이는 詩로써 詩를 비평하는 것

3) 정범진·하정옥, 『중국문학사』, 학연사, 1986, p.291.

4) 이수용, 『중국문학사』, 다락원, 2001, p.367.

[以詩論詩]을 말하는 것으로, ‘論詩絕句詩’는 청대에 이르러 문학비평의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하였다.⁵⁾

이러한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학자이자 문인이었던 서예가들은 자연스럽게 역대 서예가들과 서예작품을 시로써 비평[以詩論書]하는 ‘論書絕句詩’를 쓰게 되었으며, ‘논서절구시’는 청대 서예사의 한 특징이 되었다.

한편 청조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詩가 창작되었는데, 당시에 활동한 시인이 대략 6천여 명이 상회하였고 시집도 4천여 종이 넘었다고 하니, 당시의 시단이 얼마나 활발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때문에 북위로부터 시작된 論書詩의 전통은 청대에서도 면면히 이어져서, 논서절구 형식의 연작시를 제외하고도, 오히려 논서절구보다 더 많은 수의 장시형식의 논서시들과 단편형식의 논서시들이 지어졌다. 특히 장시형식의 시들은 서예작품이나 서가들에 대하여, 전대까지에서 나타나는 대략적이고 주관적인 印象批評에서 보다 나아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비평이나 심도 깊은 書論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Ⅲ. 청대 논서시의 유형별 분류

청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많은 논서시가 작시되었다. 그것을 대략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첫째, 대체적으로 論書絕句란 제목이 붙여지며 짧은 것은 10餘首에서 길게는 100首 이상의 絕句詩로 된 연작형식의 논서절구류, 둘째, 10句 이상으로부터 긴 것은 100韻 이상까지의 排律로 된 近體詩 및 古體詩로 이루어진 장시형식의 論書詩類, 셋째, 전통적인 논서시 형식을 이어받은 絕句나 律詩로 된 近體詩 및 짧은 古體詩로 이루어진 短篇형식 論書詩類로 구분할 수 있다.

5) 李鍾漢, 「歷代論詩絕句研究」,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1. 連作形式의 論書絕句類

杜甫의 「戲爲六絕」을 효시로 한 ‘論詩絕句詩’⁶⁾은, 唐宋朝에도 많은 시인들에 의하여 지어졌고, 이를 통하여 서로의 詩學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발전하다가, 清代에 이르러서야 문학비평의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하였다. 이에 비하여 ‘論書絕句詩’는 청대 이전에는 거의 창작되어 지지 않다가 청대에 들어오면서 주로 論書絕句란 제목 하에 칠언절구시의 연작형태로 작시되었다.

청대 이전에 연작형식의 절구시로 창작된 논서시는 논서절구란 제목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황정건의 「戲贈米元章二首」⁷⁾ 등 상당한 수가 존재한다. 그 연작 형태도 대체적으로 2~6首 정도의 적은 분량이어서 청대의 논서절구와는 양식적인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논시절구란 제목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양식적인 유사성이 보이는 작품으로는 명대의 張丑(1577-1643)이 지은 「米庵鑒古百一詩」⁸⁾ 이다. 이 시는 총 101首의 절구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역대 서가와 작품에 대한 비평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논서절구시가 창작되기 이전에 가교의 역할을 한 시로 보인다.

청대에 창작된 논서절구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논시절구와 마찬가지로 주로 전대의 서가나 글씨에 대한 비평의 용도로 활용되었다. 또한 논시절구로 사용된 시들은 모두 칠언절구로 창작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시 본래가 가지는 함축성 보다는 비평시가 가지는 특징인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산문적인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논시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 시는 劉壘(1719-1804)의 저서인 『學書偶成』에 실려

6) 배규범, 「논시절구의 경향과 전개양상」, 『어문연구』 11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p.123.

7) 黃庭堅, 『山谷集』 卷9.

8) 張丑, 『清河書畫舫』 卷12下.

있는 「論書絕句三十首」⁹⁾ 가운데에 4首를 가려 뽑은 것이다.

虞共歐陽本一途	虞世南과 歐陽詢은 본래 한 길이니
妄分同異亦區區	헛되이 같고 다름을 구분한들 또한 구구하다
率更主器差堪恨	구양순의 표현하는 재능 못함이 한스러워
拋却懸黎寶玞球	美玉을 버리고 소박한 돌을 소중히 하리라
露骨浮筋苦不休	근육이 없고 뼈가 드러나 진실로 아름답지 못하니
縛來手腕作俘囚	손과 팔을 묶어 가두어 두리라
要從筆諫求書訣	서적을 구함에 필법으로 간언함을 따르도록 하니
何異損階百尺樓	계단도 없이 백 척 누대에 오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
蘇黃佳氣本天真	소식과 황정건의 佳氣는 본래 친진한 것이어서
姑射豐姿不染塵	아름답고 풍만한 자태는 속세에 물들지 않았네
筆軟墨豐皆入妙	운필이 부드럽고 용묵이 풍부하여 묘경에 들어
無窮機軸出清新	끝없이 오묘한 법 청신함을 내는구나
晉代風流去不回	진대의 훌륭한 풍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米顛筆挽一分來	미불의 필법은 한 부분을 오게 하는구나
褚虞習氣銷除盡	저수량과 우세남은 습기에 빠져 진대풍류 잊었으니
桃李叢中見嶠梅	도리화 무리 가운데에 매화 같은 품격 보았네

첫 번째 시는 書家와 글씨에 대하여 비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에서는 우세남(558-638)과 구양순(557-641)을 평가하면서, 두 사람 모두 王羲之(307-365)를 계승하였지만, 우세남의 글씨는 剛柔를 안으로 함축하고 있고 구양순의 글씨는 筋骨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군자는 기용을 감춰야하기 때문에 우세남이 더 우수하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는 유공권(778-865)을 비평한 시이다. 그의 글씨는 근육은 없고 뼈만 있으니 좋지 못하며, 唐 穆宗(795-824)의 필법의 요결에 대한 물음에 마음이 바르면 글씨도 바르다고 하였으니, 이는 계단도 없이 백

9) 沈培方·洪丕謨, 『歷代論書詩選注』, 上海書畫出版社, 1987, pp.77-80.

척의 누대에 오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쓸모없는 말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 시는 소식(1037-1101)과 황정견(1045-1105)을 비평한 시로 두 사람의 필법이 자연스럽게 옹묵이 풍부하여 묘경에 들었다는 내용이다.

네 번째 시는 미불(1051-1107)을 저수량(596-658)과 우세남에 대비하여 비평한 시이다. 저수량과 우세남의 글씨는 너무 범도에 맞는 글씨인데, 미불의 글씨는 자유스러워 진대 왕희지와 같은 풍모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논서절구시는 역대 서가나 그의 글씨를 비평하는 용도로 많이 지어졌다.

논서절구는 논시절구처럼 비평문학으로만 자리한 것은 아니었다. 논서절구시에는 본격적인 서론을 논한 것도 있는데, 王文治(1730-1802)의 「論書絕句三十首」¹⁰⁾ 가운데에 한 수를 읽어 보자.

墨池筆塚任紛紛	글씨 공부에 버린 붓 산처럼 쌓여도
參透書禪未易論	서예의 오묘한 경지 터득하기란 어렵다네
細取孫公書譜讀	자세히 손과정의 『서보』를 읽어보아도
方知渠是過來人	바야흐로 손과정 그 사람만을 알 뿐이다

이 시는 學書法을 설명해주는 시인데, 글씨의 오묘한 경지란 글씨를 많이 써서 되는 것도 아니요, 『서보』와 같은 훌륭한 이론서를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홀로 깨우침의 경지에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왕문치의 시는 서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다음 包世臣(1775-1855)의 「論書十二絕句」¹¹⁾는 서예의 역사를 논하고 있다.

程隸原因李篆生	정막의 예서는 이사의 전서에서 생겨났고
蔡分展足始縱橫	채옹의 팔분은 필봉을 전개하여 자유롭다
更依分勢成今隸	다시 팔분에 의거하여 해서를 만드니

10) 姜光斗·金學智·吳企明, 『歷代題詠書畫詩鑒賞大觀』, 陝西人民出版社, 1993, p.687.

11) 包世臣, 『藝舟雙楫疎證』, 華正書局, 中華民國 74.

不辨眞源漫證盟 참된 근원을 알지 못하고는 서를 잘 알지 못한다

이 시는 예서와 해서의 역사에 관한 시이다. 기구는 정막이 창제한 예서라는 것이 이사의 전서를 정리하고 간략화한 것이라는 설명이고, 승구는 채옹이 창제한 팔분은 전서와 古隸에서는 없었던 파책을 더하여 만들었는데, 그 운필이 모두 필봉을 전개하여야 했으므로 그 필세가 더욱더 자유로웠다는 것이다. 진구는 금예, 곧 해서의 창제는 팔분서를 기초로 하여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결구는 이러한 서예사의 변화와 근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글씨의 잘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포세신의 논서결구는 서예의 역사를 논하고 있는데, 그의 저서 『藝舟雙楫』의 「論書十二絕序」에서도,

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필법의 전함을 말하고, 순서를 좇아 시로 지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사람들이 보아 알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의견이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생략하였다.¹²⁾

라고 하여 書史를 논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논서결구시는 논서결구시와 다르게 단순히 작가나 작품의 비평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고, 서예학습의 본령인 필법이나 서예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長詩形式의 論書詩類

북위로부터 시작된 논서시는 唐代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 하였는데, 唐代 논서시의 成熟과 發展은 李白과 杜甫에 의하여 이루어졌다.¹³⁾ 특히나 이백의 「草書歌行」은 7言 26句로 이루어진 古體詩로

12) 包世臣, 위의 책, p.54, “紀漢世以來, 迄於近今, 宗派脈絡, 次爲韻語. 其人所共見, 而名實復副者, 概從略焉.”

13) 蔡顯良, 「唐代論書詩研究」, 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pp.7-12.

곧이어 나오는 두보의 「李潮八分小篆歌」, 韋應物的 「石鼓歌」, 韓愈의 「石鼓歌」 등 이후에 나오는 장시형식의 고체시로 창작된 논서시의 양식적인 표본이 되었다.¹⁴⁾ 또한 두보의 「李潮八分小篆歌」와 「殿中楊監見示張旭草書圖」 등 11首의 논서시는 詩學史에서 그의 위치로 볼 때 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¹⁵⁾

청대에 창작된 장시형식의 논서시는 배율로 된 근체시 보다는 대부분이 고체시인데, 이는 근체시가 가지는 평측과 압운의 제한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시형식의 논서시가 창작된 연유를 살펴보면, 시작 대상을 짧은 시로 표현해 내는데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비교적 표현이 자유로운 고체시가 많이 사용되어졌던 것이다.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청대 장시형식의 고체시로 이어진 논서시는 이백의 「草書歌行」과 두보의 「李潮八分小篆歌」의 형식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대처럼 단순히 書家나 作品을 비평하는 내용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書法이나 書史를 다룬 것들이 많아졌다. 역대로 이 장시형식의 고체시는 대체적으로 단편의 논서시에 비하여 구체적인 작가나 작품에 대한 비평, 서법에 관한 사항, 서체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서예 전반에 관한 사항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청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청대의 이러한 시는 전 시대에 비하여 같은 서법에 대하여 논하였더라도 더욱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서술되었다는 것이 전대와 다른 점이며 발전한 점이라 하겠다. 먼저 高士奇(1644-1703)¹⁶⁾의 「題米芾蜀素帖¹⁷⁾」¹⁸⁾을 읽어 보자.

14) 실제로 후대에 장시형식의 고체시로 이어진 논서시들은 대부분 7言 20句 내외의 형식으로 이어졌다.

15) 蔡顯良, 앞의 논문, p.9.

16) 高士奇(1644-1703) : 청나라 초기 때의 錢塘(지금의 杭州) 사람으로, 字는 澹人, 號는 江村이다. 國學生으로 康熙帝에게 발탁되어 供奉內廷이 되었고, 관직은 禮部侍郎에 이르렀다. 詩에 능하고 글씨도 잘 썼으며, 정밀한 감식안을 가져서 소장한 書畫가 많았다. 저서로는 『左傳紀事本末』, 『春秋地名考略』, 『江村鎖夏錄』 등이 있다.

蜀縑織絲烏絲界	춤춤 짙은 蜀素에 검은 먹줄을 쳐 두었는데
米顛書邁歐虞派	미불의 글씨는 구양순과 우세남의 유파를 뛰어넘는구나
出入魏晉醜天真	위·진으로 들어가 익혀서 천진스럽고
風檣陣馬絕痛快	바람 받은 돛과 진두에 있는 말처럼 힘차도다
想昔秋登海岱樓	오래전 가을날 해대루에 오르던 일 생각하니
筆勢江波各澎湃	마치 그때처럼 필세가 강의 파도같이 가득하네
清雄超妙氣凌雲	맑고 웅장하며 빼어난 기운은 구름을 넘어
一洗胸襟頑與隘	답답한 마음을 모두 씻어주는구나
熙寧造練元祐書	희녕 연간에 만들어졌고 원우 연간에 쓰여졌지만
年經六百未塵壤	육백년이 지났어도 훼손되지 않았도다
獅子捉象喻筆力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처럼 해야 필력을 깨치니
疑有驪龍獲神怪	아마도 여룡처럼 해야 신괴함을 얻을 수 있다
頻歷滄桑兵燹餘	오랜 세월 급변하는 세상과 전쟁을 거치는 동안에
幾逢七夕隳家晒	칠석을 맞이하여 얼마나 다른 집에서 벌을 쏘었나?
五百五十六字強	훌륭한 오백 오십 여섯 글자
一一琳琅等金薤	하나하나가 임랑과 금해처럼 아름답고 진귀하다
我學青松保歲寒	청송이 추운 날씨에도 푸르름 보존함을 배우리니
漢陰抱瓮忘機械	한음에서는 항아리로 물을 기르며 기심을 잊었다네
見茲頓令心愛慕	「축소첩」을 보고 갑자기 아끼는 마음이 생기나니
似于吾道有微芥	나의 도에 자그만 결점이 있는 것 같도다
欲從碧落游帝宸	하늘을 좇아 천제의 궁전에 노닐고 싶으니
鶴羽中霄誰可緞	학의 날개를 얻어 하늘을 날애 누가 상하게 할 수 있으리
一官未挂洞庭帆	초라한 벼슬로 동정호에 돛단배 띄우지 못하니
月夜閑階了詩債	달 밝은 밤 빈 계단에서 미처 짓지 못한 시를 쓰노라

17) 蜀素帖 : 미불(1051-1108)의 초기 대표적인 작품으로, ‘蜀素’라고 하는 진귀한 비단에 쓴 것이다. 北宋四大家 중에서 미불의 글씨가 필법과 속도 면에 있어서 가장 민첩하고 변화가 많다. 이 작품은 비록 검은 선으로 된 격자 안에 쓴 것이지만 行筆이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치며 격식의 구속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18) 姜光斗 外, 앞의 책, pp.607-611.

이 시는 李白의 「草書歌行」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시이다. 7言 24句라는 외형적인 측면 이외에도, 이백은 회소 스님의 초서의 뛰어난 점을 여러가지 비유·함축·은유를 사용하여 부각시키고 있는데, 高士奇는 미불 「축소첩」의 글씨를 마찬가지로 비유·함축·은유를 사용하여 칭찬하고 있다. 두 시를 비교해보면, 사용된 詩語들은 각기 다르지만 그 표현 방법들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詩風은 유사하다. 李白은 「草書歌行」에서 회소 스님의 글씨는, “연지에 북명어가 날아오르듯 하고 필봉은 中山의 토끼를 다 잡는 듯하다.[墨池飛出北溟魚, 筆鋒殺盡中山兔.]”라고 하였고, 高士奇는 「題米芾蜀素帖」에서 미불의 글씨를, “위·진으로 들어가 익혀서 천진스럽고, 바람 받은 듯과 진두에 있는 말처럼 힘차다.[出入魏晉醞天真, 風檣陣馬絕痛快.]”라고 하였다. 이백이 연지에서 북명어가 나온 것 같다는 것은 쓴 글씨가 많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필봉은 中山의 토끼를 다 잡은 듯하다는 것은 글씨 연습을 그 만큼 많이 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고사기가 魏·晉으로 들어가서 천진스럽다고 말한 것은 미불의 글씨가 왕희지를 배워서 자연스럽다는 것이며, 그 다음은 그의 글씨가 침착하면서도 힘참을 나타내는 바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기존의 시와 유사한 시가 있는 반면, 다음의 시처럼 전대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필법을 설명하고 있는 시도 있다. 梁巖의 「執筆歌」¹⁹⁾를 보자.

學者欲問學書法	학자가 서예를 배우는 것을 묻고자 한다면
執筆功能十居八	집필의 일이 열 가운데 여덟을 차지하나니
未聞執筆之眞傳	집필의 참된 전함을 듣지 못한다면
鍾王學盡徒茫然	중요와 왕희지를 다 배워도 다만 아득할 뿐이리라
一管分爲上中下	필관을 상·중·하로 나눈다면
眞字小字靠下攏	해서와 작은 글씨는 아래를 잡고

19) 梁巖, 『歷代書法論文選』, 華正書局有限公司, 民國 86, 「評書帖」, pp.535-536.

行書大字從中執	행서와 큰 글씨는 중간을 잡고
草書執上始能工	초서는 위를 잡아야 비로소 공교할 수 있으리라
大指中指死力掐	대지와 중지는 힘써서 손톱 끝을 사용하여
圓如龍睛中虛發	둥글게 하기를 용의 눈동자처럼 해야 속이 비게 되며
食指名指上下推	식지와 명지는 위와 아래에서 밀어주어야
亦須着力相撐插	또한 모름지기 힘차게 서로 필관을 지탱할 수 있다네
禁指無用任其閑	소지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手背內坎半朝天	손은 굽어 안이 구덩이 같아서 반쯤 뜬 해와 같아야
如能沈着堅而實	침착하게 하여야 견고하고 내실 있게 할 수 있으니
個中精力悟通元	이 가운데에 활동적인 힘이 현묘함과 통함을 깨달으리라
筆管上向懷中入	필관의 윗부분은 몸 쪽으로 살짝 기울고
下截筆鋒向外出	아랫부분의 필봉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야한다
腕力挺住不須搖	팔뚝의 힘을 빼고 멈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느니
轉運全在肘力墊	움직임은 오로지 팔꿈치의 힘을 빼는데 있다
懸腕懸肘力方全	현완과 현주로 해야 힘이 바야흐로 온전하게 되니
用力如抱嬰兒圓	힘을 쓸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듯이 둥글게 감싸야한다
勿令偏窄貼身邊	몸의 한쪽에 치우쳐 붙이지 말아야 하느니
總之執筆功期遠	종합하면 집필은 공력이 원대함을 기약하는 것이로다
緊要着力無淺	힘이 불도록 하여 힘이 없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니
古人有言良不誣	고인이 말한 것이 참으로 헛되지 않으니
抉破紙兮撮破管	종이를 도려낼 듯이 힘은 필관을 깨뜨릴 듯이 잡아야한다

이 시는 그의 저작인 「評書帖」 첫머리에 나오는 것으로, 이 한 편은 오로지 집필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필법에 관한 시이다. 이 시 뒤에는 董其昌의 執筆法과 古傳執筆法이 이어서 실려 있으니, 양현이 얼마나 집필법을 중시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4구까지는 집필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고, 8구까지는 서체에 따라서 잡는 위치가 달라야 함을 말하고 있다. 16구까지는 각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며, 20구까지는 팔뚝과 팔 전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마지막까지는 몸의 전체적인 자세와 집필에서의 요점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청대에 지어진 장시형식의 논서시는 전대에 비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3. 短篇形式의 論書詩類

단편형식의 논서시류는 전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양식을 그대로 답습한 짧은 시들을 말한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 書家나 作品에 대한 개괄적인 인상비평이나 작자의 감회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수적인 면에서는 전대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작품들이 지어졌다. 朱彝尊²⁰⁾의 「題董尚書²¹⁾墨迹²²⁾」을 읽어보자.

三眞六草 ²³⁾ 董尚書	셋은 해서체 여섯은 초서체인 동기창의 글씨
北米東邢 ²⁴⁾ 總不如	북의 미만중, 동의 형동도 모두 그만 같지 못하네
試誦容台好詩句	시험 삼아 『容台集』의 좋은 시 구절을 읽노라니
一縑肯換百碑 ²⁵⁾	비단 글씨 하나로 능히 백 개의 보석을 바꿀 수 있으리

-
- 20) 朱彝尊(1629-1709) : 청나라의 문인·고증학자로 자는 錫鬯, 호는 竹垞이다. 詩·詞·散曲에 뛰어났으며 『明史』의 편집에 참여하였다. 저서에 『曝書亭集』, 『日下舊聞』, 『經義考』 따위가 있다.
- 21) 董尚書 : 董其昌(1555-1636)을 말하는 것으로, 그는 명나라 말기의 문인·화가 겸 서예가이다. 저서인 『畫禪室隨筆』에서 南宗畫를 北宗畫보다도 더 정통적인 화풍으로 한다는 ‘尙南貶北論’을 주창했다. 문학에도 능통하였고, 서가로서도 명대 제일이라고 불리며 邢侗과 어깨를 겨루어, ‘北邢南董’이라 불린다. 주요 저서에는 『容台集』 등이 있다.
- 22) 姜光斗 外, 앞의 책, pp.586-587.
- 23) 三眞六草 : 동기창의 글씨가 셋은 진서[楷書]의 범을 띄고 있으며, 여섯은 초서의 범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글씨는 진서와 초서의 범이 많다는 말이다. (沈培方·洪丕謨, 앞의 책, p.60.)
- 24) 北米東邢 : 順天(지금의 북경지역) 사람인 米萬鍾과 山東 臨淸 사람인 邢侗을 말한다. 이들은 동기창과 동시대의 유명한 서예가로 북미동형으로 불렸다. (沈培方·洪丕謨, 위의 책, p.60.)
- 25) 碑磔 : 車磔라고도 하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西域의 七寶 중의 하나인 옥돌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沈培方·洪丕謨는 위의 책

이 시는 전대의 논서시들과 마찬가지로 작자와 그의 글씨에 대한 짧은 평을 한 것으로, 동기창의 글씨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미만중이나 형동보 다도 훌륭하였으며, 비단에 써진 그의 글씨는 백 개의 보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값지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汪士慎(1634-1711)의 「絶句」²⁶⁾이다.

目眩心搖壽外翁	눈이 현란해지고 마음이 요동치는 수외옹
興來狂草活如龍	흥이 난 광초 활발하기가 용과 같구나
胸中原有雲煙起	마음속에는 원래부터 구름 일어남 있었던 듯
揮洒全無八法工	휘두르는 글자마다 법도에 구속되지 않는구나

대체로 논서시들은 남의 작품이나 서가에 대하여 비평하는 시들이 많은데, 이 시는 그와 달리 자신이 글씨를 쓰면서 느끼는 점을 자술한 시이다. 起句의 壽外翁은 자신의 자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글씨를 쓰는 흥분된 기분을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승구는 흥이 나서 쓴 광초는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다. 그리하여 전구에선 마치 원래부터 마음속에 구름이 이는 것과 같은 기세가 있었던 것 같아서, 결구에서는 쓰는 글자마다 구속됨이 없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단편형식의 논서시라도 율시로 창작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형식상 절구로 창작된 논서시보다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비평이나 감상을 나타낸다. 다음 시는 清高宗 弘曆의 「蘭亭卽事」²⁷⁾이다.

向慕山陰鏡裏行	존모하는 산음 향해 거울 같은 호수가로 가는데
清游得勝愜平生	명승지 찾아 청유함은 평생의 좋은 일로다
風華自昔稱佳地	바람결에 꽃 피워 예로부터 아름다운 곳이라 하였으니
觴咏于今記盛名	이제 잔 들어 술 마시며 시 읊조리고 성명을 기록하네
竹重春煙偏澹蕩	대나무 우거진 숲은 봄 아지랑이 가득하고

에서 이것을 열대해양에 사는 연체동물의 껍질이라 하였다.

26) 姜光斗 外, 앞의 책, pp.620-622.

27) 沈培方·洪丕謨, 앞의 책, p.64.

花開禊日尙敷榮	꽃피는 계사일은 무성함을 숭상함이라
臨時留得龍跳法	잠시 머물러 있으며 용이 도약 하는듯한 서법을 얻는다면
聚訟千秋不易評	어지러이 따지는 사람들도 천추에 평을 바꾸진 못하리라

이 시는 淸 高宗이 난정에 갔다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시로 옮긴 것이다. 수련에서는 존경하는 왕희지의 유적지를 찾아감에 설레고 경건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함련과 경련은 山陰의 아름다운 풍광과 왕희지가 禊事를 행하며 하였던 일들을 자신이 직접 실천해 보고 있으니, 미련에서는, 만약 왕희지의 필법을 깨닫는다면 「蘭亭序」의 진위에 대한 어지러운 세상의 쟁론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청대의 단편형식의 논서시류는 전대에 비하여 보다 소재가 다양해지고 표현이 구체화 되었다.

IV. 청대 논서시의 조선유입

중국 논서시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은 신라의 崔致遠으로부터이며, 그의 논서시 「筆法」은 『全唐詩』에 실려 있기도 하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서시가 지어졌으며, 청대의 논서시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조선후기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논서절구시 이외의 논서시들의 양식은 이미 전대부터 있어왔던 것들이라서 조선후기에 지어진 논서시들이 청대의 논서시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전대에 지어진 논서시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때문에 내용적으로 金石學이나 考證學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논서시, 혹은 그런 학문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논서시를 청대 논서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조선후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청대 논서시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고 추론되는 작품은 姜世晁(1712-1791)의 「次錢牧齋雁字詩」가 있는데, 이 시는 칠언율시 12首의 연작 형태로 되어 있어서 청의 논서절구시와 연작

시라는 유사성이 있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역대 서가와 글씨를 비평하고 있으며, 또한 1784년 직접 연경에 들어가서 당시의 명가들과 교유한 점 등에 있어서 청조 논서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한편 申緯(1769-1845)의 경우는 1812년 연경에 들어가서 翁方綱 등 청조의 명사들과 교유하고 오는 등 그의 논서시들에서는 청조의 논서시와 유사한 면을 많이 나타낸다. 더군다나 그는 논서시에 있어서도 청조의 논서시와 같은 양식을 가진 「東人論詩絕句」 35수를 짓기도 하였고, 그의 「題漢隸十首」는 비록 논시절구라는 제목은 붙지 않았지만 칠언절구의 연작 형식이 그렇고 내용면에서도 당시 청조의 옹방강이나 완원 등 비학파들이 漢隸에 글씨의 근본이 들어 있다는 생각과 동일하게, 그의 시도 漢隸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그 연계성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게 한다. 그의 「題漢隸凡得十首」²⁸⁾를 감상해보자.

太邱明德邁公卿	陳太邱의 明德은 공경들 속에서도 뛰어나서
文範先生節惠成	文範선생은 시호 되었네
證古留言唐北海	證古하는 말씀 唐의 李北海부터이니
敬碑起例漢東京	敬碑하는 隸는 漢나라 東京의 隸라야 하느니

幽讜陰陽育物時	음양을 유찬하여 만물을 기르니
恩仁威武兩兼止	은인과 위무를 두루 겸하였다
倘推白石神君例	이 백석신군의 예를 미룬다면
濟北穀城何不碑	제북의 곡성에 어찌 비 안세우리

隸體出奇不一端	예서체의 기괴함은 하나 둘 아니니
景君碑字拭苔斑	경군의 비자를 이끼 씻고 보리라
天生孩氣參心匠	하늘이 낸 치기에 기교를 더하니
筆勢駸駸竹楷間	필세는 차츰차츰 竹楷에 젓어드네

28) 申緯, 『警修堂全藁』, 『韓國文集叢刊』 291, pp.556-557.

石墨非徒隸法奇	石墨을 씌에 어찌 예서법만 기괴하라?
闕文欣賞足徵時	빠진 문장을 흠상함에 시대도 알 수 있구나
孔林儀制追惟地	孔林的 儀制을 追惟함에
禮器參看卒吏碑	禮器碑와 卒吏碑를 두루 참고하리
秋貶春宣智力殫	가을에 거두고 봄에 베풀에 지력을 다하고
匡君輔主奠區寰	군주를 보좌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네
石門大筆摩崖頌	석문에 대필로 마애송을 쓰니
意在張遷魯峻間	장천비와 노준비 사이에 있구나
踐言修己博陵守	말을 실천하고 수양하는 박릉태수는
夫子家風稟得來	夫자의 가풍을 이어 왔어라
伐石銘詩論德跡	돌 깎고 시 새겨서 덕을 찬양하니
汜而不俗出塵埃	모여도 不俗하여 塵埃를 벗어나네
雪白蘭芬孝友敦	눈처럼 희고 난처럼 향기로워 효우도 돈독하니
天心不繆淑人親	천심도 어기지 않고 맑은 사람과 친하네
旣多受祉南山壽	이미 복 받아 남산처럼 장수하니
干祿無疆子子孫	대대로 끝없이 녹을 받는구나
疏廣心存止足戒	소광은 마음 보존함과 지족을 경계하여
於陵身作灌園翁	어릉중자처럼 권원옹이 되었네
儒宗士表當時望	유종과 사표로 명망 높으며
詩易春秋禮博通	시와 역, 춘추, 예에 널리 통하였다
學優則仕武舍和	학문이 넉넉하여 벼슬을 한 武舍和
治魯詩遊大學多	노나라 시를 힘써 닦아 태학에 있었네
銘石藐然高厲節	아득히 높은 절개 돌에 새겨두니
雨淋日炙不能磨	비 내리고 해 쬐어도 마멸이 없다
漢隸覃心搜剔時	한예에 마음 두어 찾아가기 바쁠 때에
蘆窓印月篆煙遲	발 드리고 달 밝아서 향기도 이네

濃堆墨古苔花剝 묵색도 짙게 종이에 어리니
 尹宙何如孔宙碑 윤주비와 공주비 그 어떠한가?

이 시들은 신위가 중국에 갔을 때 열 개의 隸書로 된 漢碑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은 시들이다. 그 내용들은 비석에 쓰인 내용을 토대로 지어진 것으로, 직접 비석을 찾아가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상고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한비를 중시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다.

신위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보다 3년 먼저 연경에 들어가 옹방강과 완원으로부터 해동제일의 문장이란 칭송을 들었던 추사는 「題岱覽卷面」, 「送紫霞入燕」 등 많은 논서시를 남겼다. 특히 「聞某從市中 得拙書 流落者購之 不覺噴飯如蜂 走寫以志 媿略敍書道 又以勉之」는 5言 40句로 된 고체시로서, 거기에는 한비를 중시하는 사상이나 임서법 등 그의 서예에 대한 사상을 한 편의 시로 감상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그의 논서시들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청대 논서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분히 청대 비학파들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

청대의 논서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논서시에 영향을 준 점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 전대에 비하여 장편의 논서시들과 연작의 논서시들이 많이 지어졌다. 둘째, 첩학 보다는 비학을 중시하는 사상이 고취되었으며, 특히 한예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청대의 논서시에서 나타나는 경향처럼 조선에서도 전대의 논서시보다는 작자·작품을 비평하거나 서법을 논함에 있어서 표현이 한층 구체적이고 묘사가 자세해 졌다고 할 수 있겠다.

V. 結 語

인간의 생각, 곧 의사를 가장 손쉽게 표현하는 것이 말, 즉 언어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언어를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고자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詩가 존재하고, 좋은 시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널리 애송되기도 한다. 서법을 논하는 논서시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서예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붓글씨를 쓰는 방법인 필법을 자세하게 전달하려면 가장 알기 쉬운 문자로 쉽게 전달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논서시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반적인 서론에서조차도 비유와 은유 등 온갖 수사를 동원하여 오히려 익히는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해 두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도 있다. 오히려 명쾌함보다는 모호성이 인간의 상상력과 감성을 더 자극 시켜서 문예미를 더욱 더 배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논서시가 표현의 제약성이 있으면서도 계속 창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대는 이러한 논서시가 역사상 가장 왕성하게 창작되었는데, 그 분류는 連作形式의 論書絕句類와 長詩形式의 論書詩類, 短篇形式의 論書詩類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연작형식의 논서시류는 청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으로 대체적으로 칠언절구의 연작 형식으로 지어졌는데, 짧게는 10여수에서 길게는 100여수의 시가 넘는 것도 있다. 장시형식의 논서시류는 이백의 「草書歌行」과 두보의 「李潮八分小篆歌」가 그 양식적인 표본이 되었는데, 이러한 장시형식의 논서시류는 단편의 논서시에 비하여 구체적인 작가나 작품에 대한 비평, 서법에 관한 사항, 서체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서예 전반에 관한 사항이 내포되어 있으며, 청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시대에 비하여 같은 서법에 대하여 논하였더라도 더욱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서술되었다. 단편형식의 논서시류는 전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양식을 그대로 답습한 짧은 시들을 말하며, 그 내용도 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 書家나 作品에 대한 개괄적인 인상비평이나 작자의 감회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청대의 단편형식의 논서시류는 전대에 비하여 보다 소재가 다양해지고 표현이 구체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청대의 논서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논서시는 전대에 비하여 장편의 논서시들과 연작의 논서시들이 많이 지어졌고, 첩학보다는 비학을 중시하는 사상이 고취 되었으며, 전대의 논서시보다는 작자·작품을 비평하거나 서법을 논함에 있어서 표현이 한층 구체적이고 묘사가 자세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參考 文獻>

『書經』

『詩經』

康有爲, 『廣藝舟雙楫疎證』

蘇軾, 『東坡詩集註』

——, 『東坡全集』

申緯, 『警修堂全藁』, 『韓國文集叢刊』 291, 民族文化推進會, 2002.

梁嘯, 『歷代書法論文選』, 『評書帖』, 華正書局有限公司, 民國 86.

劉壙, 『石庵詩集』

李白, 『李太白文集』

張丑, 『清河書畫舫』

包世臣, 『藝舟雙楫疎證』, 華正書局, 中華民國 74.

黃庭堅, 『山谷集』

김광욱, 「중국 논서시 연구」, 『1999년도 동계학술발표집』, 한국서예학회, 1999.

배규범, 「논서절구의 경향과 전개양상」, 『어문연구』 11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이기범, 「중국 논서시 소고」, 『漢文古典研究』 제15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7.

이수용, 『중국문학사』, 다락원, 2001.

李鍾漢, 「歷代論詩絕句研究」,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정범진·하정옥, 『중국문학사』, 학연사, 1986.

姜光斗·金學智·吳企明, 『歷代題詠書畫詩鑒賞大觀』, 陝西人民出版社, 1993.

沈培方·洪丕謨, 『歷代論書詩選注』, 上海書畫出版社, 1987.

蔡顯良, 「唐代論書詩研究」, 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Abstract

*A study of Ching Dynasty poetry Discussing Theory on Calligraphy / Lee Gi Bum**

Nonseosi means a poem which discusses calligraphy by poem. This Nonseosi was originated from the poem of musical piece by Josik with the pen name of Jageon who was the first ranking person in terms of Geonan style. This model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through Leebaek and Doobo in the time of Tang Dynasty.

In the time of Song Dynasty, the Nonseosi which pursued 'lofty mind' by Sosik and Hwang Jung-kyun was very popular and in terms of quantity, it made a rapid progress. On the other hand, in the times of Yuan Dynasty and Ming Dynasty, it was slowly dwindled without many changes and with reaction to this decline, there was a tendency to pursue traditional style of calligraphy and feelings of ancient sages.

In Ching Dynasty, Nonseosi arrived at its meridian life along with epigraphy and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 It did not mean meridian glory only in terms of quantity but also meant prosperity in terms of content since there were more poems which discussed more different types of calligraphy in earnest than previous times. In addition, as there was unsatisfactory point of expression to represent the feelings with short poems, Nonseosi of long poems and Nonseojeolgoo as the sequence type of Chinese quatrain came into vogue. In this thesis, the researcher examined what new forms of features were demonstrated in Qing Dynasty when Nonseosi was actively generated compared to previous times and through this investigation,

* Lecturer of Dongguk Univ. / leehyunso@hanmail.net

the researcher analyzed Nonseosi of those times per type.

【Key words】 Nonseosi(論書詩), model of Nonseosi, Leebaek, Doobo,
Epigraphy,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 Nonseojeolgoo

투고일 : 5월 8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2일